

■ 2024년도 청년 인문실험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청년 인문실험
- 회의일시 : 2024년 07월 02일(화) 11:00~
- 회의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충정로 사무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인설, 김환희, 남승원, 최연구, 허난영

2024년도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부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들을 인문의 관점과 더불어 청년의 상상력으로 해법을 찾아보는 탐구적 실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된 3인 이상의 팀들이 자유롭게 선정한 주제와 실험 유형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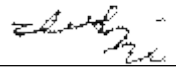
심의위원들은 공모지원 내용들이 인문적 사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명확한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실험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실험의 결과가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팀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여부와 함께 실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등도 심의기준으로 유의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먼저 실험의 의미와 타당성을 가려 개별적으로 공모지원서를 사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모인 뒤에 다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지원 실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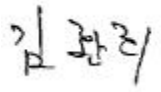
지원한 실험들은 모두 유의미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대도시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에 가려진 지역의 문제 등을 청년 특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청년들만의 고민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립된 청년 세대들의 내면이나, 도시와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에 정착하고자 고투하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주제들은 이와 같은 인문 실험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의미나 시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의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예상되는 결과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경우, 그리고 팀원들 간의 유기적 결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 등 인문실험의 의도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토의 과정에서 이처럼 주제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의 구체성 등이 보다 인문실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면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한 실험들이 선택한 주제들의 면면은 그대로 청년들의 시선이 포착해낸 우리 현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성된 팀이 내놓은 해결 방안들 역시 모두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실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실에 심의위원들은 모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선정되지 않았다해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청년들의 인문실험이 다양한 지역에서, 각각의 문제 해결에 맞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청년세대들의 인문실험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심의위원명 : 김인설 

김환희 

남승원 

최연구 

허난영 